

# 설 맞아 한옥마을 경기전 무료 개방

### 전주시, 27일부터 30일까지 문화시설 10개소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설 당일에는 경기전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주한옥마을 등 10개 문화시설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뜻 깊은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과 연휴를 맞아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도시 전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과 문화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시는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경기전 홍보와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

을 제공하기 위해 설 당일에는 경기전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경기전에서는 탁본체험과 2017년 운세점치기 '웃집', 투호놀이·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 등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설 연휴기간 전주시역 10개 주요 문화시설에서도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설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과 소리문화관 등에서는 제기차기와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와 창작곡악 '복 나와라 뚝딱!' 공연, 판소리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전통술박물관은 신선주 빚기, 전통주 및 기양주 미각체험, 모주 만들기, 소주내리기 등 전통술 시음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명희문학관에서는 '꽃심' 비누만들기 체험

과 '흔들' 작품속의 한가위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전주뚝(발), 엽서 한 장' 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과 사랑을 담아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부채문화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 게임과 부채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념품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완관분화관은 옛 책 만들기, 목판화 한지벽걸이 만들기 등 과거 인쇄과정을 경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국전통문화재단은 '기움 福을福을(복을복을) 설맞이'라는 주제로 우리 밀 초코파이 만들기, 한지고누 만들기 놀이, 우리가족 스킵 빚 만들기, 무지개 떡케익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꼬꼬한지등 만들기, 전통탈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 진행과 전통한지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인 '전통한지문화교육 결과

물'도 열린다.

이밖에도 전주역사박물관은 한복을 입고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선물하고, 설맞이 특선영화 상영과 새해 소망을 담은 연날리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올해 설은 주말을 포함한 4일간의 연휴로 시민과 많은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채로운 전통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설연휴 동안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께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연휴 기간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경기전 등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여춘희 신임 전북 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 선임

전북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신임 회장에 전주 문화관광해설사회 여춘희(62)가 선출됐다.



전북도 문화관광해설사회장에 선출된 여춘희 회장(전주시)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2013년도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회장을 역임한 베테랑 문화관광해설사로, 일본어 JLPT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일본어에 능통한 해설사이다.

문화관광해설사회는 또한 신임 여춘희 회장 선출과 함께 부회장에 이지복(김제시), 안옥선(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를 선임하고, 사무국장에 전주 문화관광해설사 박신희씨를 임명했다.

또한 감사에는 안충현(장수군), 오윤희선(익산시), 재무에는 박새순(순창군) 문화관광해설사를 각각

사무국장에 선임된 박신희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원광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은 후 전주시 시티투어해설사를 거쳐 2009년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2016년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회장을 지내는 등 전주시 관광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재 기자

## 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 전주시, 신경과 병·의원 등 30곳 치매검진 기관 지정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을 위해 무료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치매상담센터(센터장 김경숙)는 올해 전주시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병·의원 등 30곳을 치매검진 기관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무료 치매검진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최근 기억장애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 등의 치매의심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조기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또, 만 60세 어르신 중 치매 진단 및 치매 약을 복용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매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지난해 전국가주 평균소득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실시한다.

무료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어 정신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20일 올해 치매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의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각종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 치매예방과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추정 인구수는 8074명이며, 치매상담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도 총 886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치매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치매상담센터(063-281-6291~5,624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착공해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는 지난 19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24차 월례회의에서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최근 정부가 국도의 동·서축을 이어주는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86.1km)을 수정해 성주~대구 구간(25km)만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과 관련, 원안대로 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착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협의회는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영호남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는 물론 양 지역의 상생·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무주~성주 구간을 제외하고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고착화시키고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의문은 의정단체협의회에서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지난 20일 양영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이기동·백영규 시의원, 백순기 원산구청장, 황춘광 삼육재단 이사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오경남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등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 완산노인복지관 개관...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전주시 구도심권역 원산동과 서서학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완산노인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양영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이기동·백영규 시의원, 정호운 전북도의원, 백순기 원산구청장, 황춘광 삼육재단 이사장, 김윤덕 전 국회의원, 오경남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등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완산초등학교 인근(완산구 곤지산길 8)에 위치한 완산노인복지관은 기존 완산골 작은문화회관으로 사용돼 온 건물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리모델링 및 3층 증축을 거쳐 연면적 631㎡(191평), 지상 3층 규모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각종 프로그램실과 강당,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원산동과 서서학동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해소는 물론, 상담사업과 평생교육사업, 취미여가사업, 가족기능 통합지원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 김제농협조합장재선거에 금품 제공한 조합원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실시하는 김제농협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지난 20일 김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선거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조합원 A씨는 후보자 B씨와 함께 조합원 C씨의 배우자가 입원한 전주시 효자동 소재 o 병원을 찾아가 조합원 C씨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가부행위제

한)제2항에 위반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기부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금품 제공행위가 재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관리부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